부처님의 존재이유에 대하여…



원욱 스님의 경전산책

㊹ 법화경 3

부처님은 삼지삼청을 하시면서 자신의 결점을 알지 못하고 떠난 그들을 부처님은 잡지 않았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부처님께 그럴 수 있었을까? 40여년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으면서도 부처님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고 뿌리치며 떠난 사부대중 5천명을 진짜 부처님은 버리셨을까? 아니다. 삼세의 부처님들이 설법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 모두 다 함께 성불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부처님이 제자를 포기하실 리가 있겠는가, 훗날 모두 돌아와 수기를 받았다고 한다

"사리불아. 네가 미래 세상에 한량없고 그지없는 겁을 지나면서 여러 천 만억 부처님을 공양하고 정법을 받들어 지녀 보살의 행할 바 도를 구족하여 마땅히 성불하리니, 이름이 화광여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그 세계의 이름은 이구(離垢)이니 땅이 평평하고 반듯하며 깨끗하고 장엄하며 태평하고 풍성하며, 천인과 사람들이 치성하며, 유리로 땅이 되고 8방으로 뻗어나간 길은 황금으로 줄을 꼬아 드리웠으며, 그 길 옆에는 7보로 된 가로수가 있어서 항상 꽃과 열매가 무성하며, 화광여래께서도 또한 3승으로 써 중생을 교화하리라."

〈법화경의 수기〉의 시작이다. 처음 사리불이 수기를 받고 이어 4대 성문인 마하가섭, 수보리, 가전연, 목건련의 뒤를 이어 약왕보살과 대요설보살 등 2만의 보살과 십대제자와 오백아라한과 8천 성문, 아난과 라훌라를 비롯한 2,000의 제자들과 제바달다, 마하빠사빠띠, 야소다라 비구니와 6천에 비구니들과 80만억 나유타 보살이 수기를 받고 이 경전을 유통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기에 이른다. 약왕보살과 대요설보살 등 2만의 보살과 심지어 축생인 용녀에게도 수기를 주시니 일체중생이 다 성불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경을 〈수기경〉이라 부른다.

수기(授記)는 부처님의 설법 가운데 문답형식이나 교법의 이치를 설명한다는 뜻의 화가라나(vyakaranadml) 뜻이지만 훗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이 미래에 이룰 성불에 대해 예언하면 제자들이 성불의 확신을 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수기를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부처님이 되거나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고 보살도의 길을 닦는 수행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소승에서는 성불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승의 법에는 누구나 다 성불을 한다는 것은 대승과 소승의 평등성이 마치 중생과 부처님의 거리만큼이나 간격이 크다. 여인은 성불을 못한다는 소승불교의 교리가 효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모든 제자들에게 다 평등하게 수기를 내리는 모습은 감격스럽기만 하다. 특히 생사해탈에만 머무는 소승성문들에게 수기를 내리며 자비보시의 보살도를 열심히 실천하라는 가르침은 가슴깊이 다가오는 내용이다.

여래는 항상 이렇게 설법을 하신다. "마치 우담바라꽃이 언젠가 피게 되는 것처럼 여래도 이와 같이 언젠가 설법하신다. 나를 믿으라. 사리불이여, 나는 진실을 말하는 자이며, 있는 그대로 말하는 자이며, 사실과 어긋나지 않게 말하는 자이다."

수많은 여래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단 하나의 큰 이유 때문이다. 그 큰 일은 바로 중생들에게 여래의 지혜와 안목을 다펼쳐 보여 그들도 얻게 하고자 함이며(開). 여래의 지혜와 안목을 중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고(示), 여래의 지혜와 안목으로 중생들을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함이며(悟), 여래의 지혜와 안목으로 중생들을 깨닫도록 그 길로 들어오게 인도하기 위한 것(入)이다.

그 다양한 방법 속에 법화칠유(法華七喩)를 통해 삼승방편의 일불승을 보여주고, '방편품'에서 '모든 중생은 나와 다름없이 평등하다.'와 '비유품'의 '삼계중생이 모두 나의 자식이다.'를 통해 부처님이 우리에게 오신 뜻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어떤 가르침(성문연각보살)에도 만족하지 말고, 경유지(극락, 해탈 등)를 지나 목적지(열반, 니르바나, 일불승)에 도달해야만 한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길에 보살행이 필수인 것은 부처님의 세계를 완성하기 때문이다. 중생을 고통에서 건져 행복한 삶 살도록 하는 것이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이며 부처님의 존재이유라면 우리도 이 일대사인연의 길에 모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서울 반야사 주지〉

금강경식 교육으로 불교경영 완성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㊸ 귀납법과 연역법

실제로 경영과 교육면에서 선지식의 가르침을 토대로 연역법과 귀납법을 비교해 봅니다.

〈귀납법〉 단계 1: 탁월한 능력의 CEO가 되기 위하여서는 하버드대학 같은 일류대학에 진학하여 열심히 공부하여야 한다. 단계 2: 하버드대학 같은 일류대학에서 함께 공부하였지만 자신의 잠재의식의 힘을 믿고 이를 활용한 학생은 단순히 노력한 학생보다 더 뛰어난 능력의 CEO가 되었다. 단계 3: 뛰어난 CEO가 되기 위하여서는 일류대학 진학과 병행하여 잠재의식의 활용법을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연역법〉 단계 1: 우리는 마음속에 신처럼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뛰어난 CEO로서의 모든 소질을 다 갖추고 있다. 단계 2: 현재 CEO가 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열등하다는 마음이 무한 능력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계 3: 금강경 공부는 마음속에 열등하다는 생각을 사라지게 하여 본래 갖추어져 있는 무한능력을 발휘하게 하므로 CEO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귀납법의 경우 불완전한 전제(가정)로 시작하고 단계 2의 관찰에서 결론을 도출하므로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연역법 단계 1에서의 전제가 금강경 구족의 진리에서 출발하므로 더 놓고 확실하고 포괄적입니다. 그러므로 금강경식 경영이나 교육은 21세기 과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그 어떤 교육 방법보다 훨씬 더 탁월한 교육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세계중심국가가 되려면 당연히 지식교육이나 모방교육의 교육 방식을 탈피하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서양식 교육 제도를 따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금강경식 교육을 통해 세계중심국가로 이끌어 나가는 각 분야의 인재들을 많이 말들 수 있을 것입니다.

금강경식 교육의 첫 단계는 자신이 부처님처럼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고 무엇이든 못할 것이 없다는 구족의 진리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실제로 시시각각으로 바라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있는 위대한 자신이 실제로 시시각각으로 바라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있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시겁으로 지어온 지업, 즉 탐친지로 인하여,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무한한 능력이 차단되어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탐욕심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 소멸하는 것입니다. 탐욕심으로 말미암아 무한 능력의 소유자에게 열등한 존재로 타락하였기에, 이 탐욕심이 소멸되면서 무한 능력의 소유자로 다시 회복하고 각종 능력이 발현되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진리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우선은 마음 밖의 모든 현실이 자신의 선입견의 표현임을 아는 일, 즉 일체유심조의 진리, 다음은 현실을 만든 이 선입견이 착각이요 본래 없는 것이라는 공의 진리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에 대해 실감하는 순간 둔재가 인재가 되고 부도덕한 사람이 도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굶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며, 유체유심조와 공의 진리를 실천하므로 너와 나,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닌 불이의 진리를 실감하게 되어 세상의 모든 이치를 훤히 아는 도인의 반열에 오른다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제일구(第一句)와 '이 뭣고'

조주(趙州) 선사께서 하루는 임제사(臨濟寺)를 방문해 발을 씻는 차에 임제 선사 께서 다가와 물으시길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서 오신 뜻 입니까?"라고 하시니, "마침노승이 발을 씻고 있는 중이니라"고 답하였다. 이에 임제 선사께서 가만히 조주 스님께 다가가서 귀를 기우리고 들으시는척 하니, 조주 선사께서 "알면 바로 알 것이지 되세김질 해서 무엇 하려는고"하시니, 임제 선사께서 팔을 흔들며 돌아가셨다.

제일구(第一句)에서 깨치면 부처님과 조사의 스승이라고 했고, 제이구(第二句)서 터득하면 인천(人天)의 스승이라 하였다. 듣고 바로 깨치면 제일구(第一句)이며, 귀를 귀울여 되새김질하면 제이구(第二句)이다.

임제선사가 하루는 발우를 갖고 탁발 나갔는데, 한 집에 가서 대문을 두드리면서 탁발을 왔다고 하니까, 노보살이 대문을 열고 나오더니 임제 선사를 보고 하는 말이, "염치 없는 중이로고"하고는 시주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임제 선사가 "탁발하러 왔는데 어째서 한 푼도 주지 않고 염치없는 중이라 하는고" 하니 보살이 대문을 왈칵 닫고는 집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에 머쓱한 임제 선사도 아무 말 없이 돌아갔다.

"임제 노장이 노파에게 허물을 보임으로서 그 노파의 빗장 관(關)의 할에 임제의 귀를 꽉 막아 버리게 하고, 누구나 자성(自性)안에 가득찬 천연무가보주(天然無價寶珠)의 문을 활짝 열어 보여준 것이다." 이것이 임제 선사를 꼼짝 못하게 한 할망구의 제일구(第一句)이며, 그 유명한 임제탁발화(臨濟托鉢話)이다.

당나라 때 위산 선사에게 향엄(香嚴)과 앙산(仰山) 두 제자가 아침마다 문안을 드리는데, 하루는 앙산 스님이 문안을 드리자 위산 선사께서 벽을 향해 돌아누우시며 말씀 하시길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대가 나를 위해 해몽(解夢)을 해 보게나"고 하시니, 앙산 스님이 즉시 밖에 나가서 세수대야에 물을 떠다가 위산 스님 앞에 놓고 나갔다.

그 다음에 향엄 스님이 문안을 드리자 앙산 스님과 똑같은 말을 하니, 향엄 스님은 즉시 밖에 나가서 정성껏 차(茶)를 달여와 바치니, 위산 선사께서 "나의 두 제자의 신통(神通)이 목련존자(木蓮尊者)를 지나가는 구나"고 하시며 크게 칭찬하셨다.

생사(生死)에서 벗어난 꿈을 깬 진여실상에서는 억지로 꾸미지않는 순수한 평상심(平常心)이 지극(至極)한 도(道)이며, 그 행선(行禪)이 바로 '이 뭣고' 인 것이다.

용성선사와 전강선사의 전신구(轉身口)의 법(法)거래이다.

전강: 어떤 것이 제일구입니까?

용성: 영신아!

전강: 예.

용성: 제일구를 일러 마쳤느니라.

전강: 허허(박장대소)

용성: 자네가 전신(轉身)을 못했네.

전강: 전신구를 물으옵소서.

용성: 여하시 전신구인고?

전강: 낙하여고목제비(落霞與孤鶩齊飛)하고 추수공장천일색(秋水共長天一色)입니다.

"저녁 노을은 따오기와 더불어 날으고 가을 물은 하늘과 함께 일색입니다."

하시니, 용성 스님이 아무 말 없이 방장실로 돌아가셨다.

이환즉각(離幻卽覺)이라, 꿈을 여읜 제일구(第一句)에서 진성(眞性)과 하나된 깨달은 경지를 보이신 것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사)대한불교 대경조계종 종도모집



총무원장
천고당 태룡

(사)대한불교 대경조계종은 본종에 등록한 사암의 재산에 대하여 일체관여하지 않는 종단으로 사암 및 종도님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지원을 하면서 고통 또한 같이 감내하는 종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불교발전과 포교에 수희 동참하실 사암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 행정지원 ◆

① 세무서 고유번호등록 ②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등록증명서
③ 차량등록 ④ 사암행정서식
⑤ 기부금영수증에 관한 일체서식 ⑥ 민원에 도움 되는 서류 및 서식

◆ 입종구비서류 ◆

① 사찰 및 승려등록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④ 사암 안팎 사진 1매(사찰등록 하실분)
⑤ 타 종단 수계첩 또는 승려증 사본 1부

◆ 사찰 및 종도님께 발급하는 서류 ◆

① 사암 가입증명서 ② 주지 임명장
③ 승려증(법사증) ④ 간부스님에 한하여 위촉장 또는 추대장을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모든 종도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정책에 반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社團法人 大韓佛教 大京曺溪宗

총무원 : 경북 안동시 향교1길 27-15 (송천동) 천룡사 ☎: 054)823-6777 H.P : 010-4053-2722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페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